날씨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④

글 장 영 주

둘째 물음에 대한 공부

이 단계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날씨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날씨의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변화의 패턴을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며 초속 몇 미터로 불고 있는가? 바람의 도서는 형태는 항상형인가 아니면 진동형인가? 항상형이라면 스타트 때는 풍향과 스타트 라인과의 각도는? 진동형이라면 도서는 주기는 몇 분 간격이며 스타트 때는 어느 쪽으로 도설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에서 스타트하는 것이 유리한가? 스타트 뒤에는 어느 쪽의 바람이 더 유리할 것인가? (바람의 도서는 패턴으로 볼 때). 흐름은 어느 쪽으로 초속 몇 미터로 흐르고 있는가? 파도는? 이러한 구체적인 날씨의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하여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날씨 현상의 데이터가 없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트경기는 전략의 우열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날씨의 현상을 정확하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경쟁자보다 더 우수한(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략이 무엇입니까? 전략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날씨 현상에서 경기 수역에 아무도 없다는 가정 아래 나는 어디서 스타트하여 경기 코스를 어떤 방법으로 주파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날씨 현상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은 전략 수립의 선행 조건인 것입니다.

<요트경기의 전략과 전술, 날쌔고 슬기롭게>는 모두 일곱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전략에 할애하고 있으며 전략을 세우기 위한 날씨 현상의 사전 조사 방법과 데이터의 작성 요령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얻은 지식을 머리에 담아 두는 것만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앎(知慧)은 함(行動)이다”고 했으니 배워서 아는 지식은 실행에 옮겨야 비로소 쓸모가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자는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모든 경기 중에 무엇인가를 배울 수는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평소에 책에서 배운 것을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 경기에 대비 한다면 당신은 분명 상위권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날씨의 현상을 조사하여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데이터로 작성하는 요령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요트경기의 전략과 전술, 날쌔고 슬기롭게>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둘째 단계의 날씨 공부는 이 책의 이론과 실기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느 경기와는 달리 요트경기는 책을 외면하고 이론을 무시한 자는 결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지적 영양실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어쩌지요? 막상 책을 추천하고 나니 면구스럽군요. <요트경기의 전략과 전술, 날쌔고 슬기롭게>는 모두 일곱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권만 출간되었고 나머지 네 권은 편집되어 파일에 담긴 채로 인쇄를 기다린 지가 6년이 지났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없으니 단체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며 단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요트도서편찬모임>을 꾸려 다음 세대의 성장과 단체의 발전을 위해 돈과 정성을 모으고 열정을 다하여 영양가 높은 밥상을 차려 주었건만 정작 구성원들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차려 놓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 지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면 필요한 기술 도서를 출간하여 각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속수무책으로 있으니 단체가 무지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나마의 밥상이 차려지기까지는 최강열 전 부회장의 노고가 컸습니다. 단체에 출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 어려운 살림이었음에도 그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광고를 얻고 경기 비용을 절약하여 그동안 무관심 했던 각종 <클래스규칙>과 <Q&A>(문답집), <가장 일반적인 규칙42 위반>에 관한 470, 420, 레이저, 옵티미스트를 번역하여 누리집에 올리고 <밧줄 다루기>를 <요트도

서편찬모임>으로부터 기증받아 보급하는가 하면 <케이스 북>(판례집)을 비롯하여 <요트경기의 전략과 전술, 날쌔고 슬기롭게> 세 권을 발간했고 나머지 네 권의 편집을 마친 상태까지 이끈 것입니다.

“단체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트도서편찬모임>의 멤버는 아웃사이더들이었고 위에서 제시한 간행물 발간 사례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협력에 따른 합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임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자기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체에 사람은 많아도 일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단체의 답답한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면서 알고자 묻고 구하지 않음은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어떤 경험으로부터도 어떤 나이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빌려 단체의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임원들께 애정어린 충언으로 대신합니다.